



왕실의 후원을 받는 원찰로 지어진 흥국사 만월보전(사진 오른쪽 건물)은 육각형 건물로 왕실 원찰답게 빼어나고 세련된 건축 솜씨를 보여준다.

공권 대접받은 선조 원찰

남양주 흥국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명 산 대찰이라 하면 지방의 심산유곡에 자리한 유명 가람들을 떠올리게 된다. 서울 근교에도 이에 못지 않은 중요한 가람들이 여럿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남양주시 수락산 아래에 있는 흥국사다. 그러나, 흥국사는 고양군 북쪽에도 또 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서울 번두리나 근교에 있는 고찰들의 이름은 대개 0국사, 흥0사, 봉0사 등 몇 안 되는 틀림조어 이름이 지어졌으나, 같은 이름의 가람이 나올 법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틀림조어의 뜻이 모두 '국가를 위하거나', '무엇인가 모시거나', '충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 뜻은 바로 왕실, 곧 국가였다.

세조 광종에는 봉선사, 사도세자 장영에는 용주사 등이 경영되었다. 이들 능침사찰들을 일컬어 조포사, 위축전, 자복사라고도 했다. '조포사'란 제사에 사용할 두부를 만드는 사찰이란 뜻이고, 다른 명칭은 왕실의 안녕과 복을 축원한다는 뜻이다. 비록 능침사찰이 아니더라도 삼각산 화계사와 같이 흥선대원군의 개인적 후원에 의해 경영된 왕실원찰도 있었다.

왕실 목수 파견 단청·조각 솜씨 훌륭 주불전 앞 대방 특이

수락산 흥국사도 일종의 능침사찰이라 할 수 있는데, 약간 복잡한 사연이 얽혀있다. 이 절은 덕흥대원군의 묘소를 지키기 위해 조성된 사찰이다. 덕흥대원군은 중종 때 창건되어 중요한 왕실 원찰이 되었다. 덕흥대원군의 자손들은 이후에도 관해군과 인조를 거쳐, 영 정조와 고종에 이르기까지 왕위를 이어 최고의 왕실가문이 되었다. 특히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흥국사를 마지막으로 증정한 대시주였다. 서울 근교 왕실 원찰들은 몇 가지 공통

적인 건축적 특징을 갖는다. 우선, 가람의 앞에 놓이는 대방이라는 특이한 건물이다. 보통 2차원으로 생긴 이 건물은 주불전 마당 앞쪽에 놓여서 가람의 얼굴 역할을 하는데, 돌출된 누마루를 양쪽 혹은 한쪽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음으로 쓰이는 큰 방인 대방과, 주지실 등이 갖추어져서, 왕실의 중요한 시주를 집적하는 공간으로 쓰인 다목적의 건물이었다.

흥국사 대방은 가장 커다란 규모에 속한다. 중앙에 넓은 대방이 놓이고, 그 양쪽으로는 2층의 누마루가 돌출되어 있다. 왕실의 귀한 손님이 내방하면 여기서 맞이하고, 이 귀한 신분의 불자들은 일반인이 들락거리는 법당보다는 대방에서 불공 들이기를 원했다고 전한다. 기둥을 비롯한 모든 부재들은 정교하게 가공되어 있고, 기단과 초석도 말끔하게 다듬어져 세련된 모습을 보인다. 대방 뿐 아니라 흥국사의 모든 건물들은 좋은 목재와 석재들이 훌륭한 솜씨로 다듬어져 있다. 왕실과 관련된 건물답게, 심지어는 왕가의 목수와 석수들이 파견되어 건물을 만들었을 정도였다.

주불전인 대웅보전이나, 원당 건물이었다면 시왕전과 만월보전 등의 지붕에 주목해 보자. 지붕의 용마루나 추녀마루 끝에는 잡상이라고 부르는 작은 조각물들이 얹혀져 있다. 건물에 피해를 입히는 잡귀를 물리친다는 장식물로서, 공권건물 아니면 감히 꾸밀 수 없는 고급스러운 요소였다. 단청도 정교하고, 부엌 문에 그려진 신장상도 훌륭하다. 특별나게 육각형 건물인 만월보전도 대단하다. 비록 외진 곳에 있고 창대받았건 불교사찰이지만, 왕실의 원찰이 되면 이 정도로 격이 달라진다.

불교는 미신이고, 불경은 요설이라고 박해했던 조선조에도 왕실 원찰들은 공권 못지않은 대우를 받았다. 불교를 우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와 축복을 위해서였지만, 성리학이라는 유교적 이념도, 고귀한 왕실의 왕족들도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았던 것일까?

종교계 '준비된 귀농' 이끈다

IMF 관리체제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농촌 전원생활에 대한 '원상'에 쫓겨 귀농했다가 도시로 유턴하는 재이농 가구가 늘어나는 반면, 귀농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 전국적으로 귀농가구 1만7800여 가구 중 재이농한 가구는 1200여 가구(7%)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귀농자금을 갖지 않거나 빚을 남겨둔 채 어떤 도주하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재이농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귀농자가 농지 임차와 주거 공간 마련 비용으로 초기에 수천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정부 지원금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자녀 교육문제와 가족간, 주민과의 갈등도 귀농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국귀농운동본부 이병철 본부장은 "농촌에 대한 원상을 가지고 귀농했던 사람들을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농촌을 떠났으며 앞으로 재이농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이라며, "소득 보다는 삶의 가치를 따져 귀농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아니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무소유·공생 등 삶의 철학제시... 이농 줄어
실상사 등 교육생 100% '농군'... 생태마을 늘어

지역 귀농학교

명칭	주관단체	전화
전국 귀농학교	국립농촌진흥청	(02)742-4611~2
부산 귀농학교	부산	(051)465-0221
대구 귀농학교	대구	(053)422-5742
광주 귀농학교	광주	(062)252-6384
대전 귀농학교	대전	(042)350-3041~3
충주 귀농학교	충주	(043)306-1233
전주 귀농학교	전주	(063)270-0794
영광 귀농학교	영광	(02)730-1884
귀농학교	귀농학교	(041)873-3004
귀농학교	귀농학교	(055)321-9000
귀농학교	귀농학교	(054)273-2228
귀농학교	귀농학교	(052)285-7008
귀농학교	귀농학교	(053)406-3776
귀농학교	귀농학교	(063)300-1925



이처럼 삶의 철학이 부재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준비 안된 귀농의 실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신적 상으로의 회귀를 요구하는 종교계의 귀농운동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실제로 불교 가톨릭 개신교 산하의 종교NGO들은 이같은 '가치관 부재의 귀농'이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적 삶이 도태가 되는 든든한 귀농운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는 불교계의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불교귀농학교와 실상사 귀농전문학교, 가톨릭 공동체교육원의 대구귀농학교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의 광주귀농학교, 개신교의 김리교귀농학교와 전주귀농학교, 한미음향경농교육원 등 모두 7곳, 장국귀농운동본부 등 14개 귀농학교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98년 9월 출범한 장국귀농운동본부에 이어 1년 뒤 두 번째로 출범한 불교귀농학교는 조화로운 삶, 더불어 사는 사회, 친환경적인 농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6기생까지 졸업생을 배출(매회 20~30명 참여)하면서 바람직한 귀농운동의 전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유일한 장기귀농학교인 실상사 귀농전문학교는 일반 귀농학교의 평균 귀농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과 달리 4기생까지 80여명의 농군을 배출해 100%에 가까운 귀농율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20일 서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제7기 불교귀농학교 입재식을 거행했다.

한 인간성과 지속가능한 생태마을'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생태 공동체'를 도 하나 뿐 씩 늘어나고 있다.

95년 '무소유 무아집, 절대 평등, 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불자 최한 살씨가 경기 안성에 동지들 본 '주론누리', 98년 불자인 송백과 철학과 은구명 교수가 교수직을 그만두고 자리잡은 변산 운산리마을, 98년 허방섭 목사가 정착한 무주 진도리 생태마을, 보수와 분배가 없는 무소유 공동체인 경기 화성의 '아마기시름 실현지', 개신교 목회자인 정호진씨가 96년 시작한 생명누리공동체, 98년 개신교 목회자들이 폐교를 인수해 시작한 함마공동체 등이 그것이다.

이들 생태마을은 각기 다른 종교적 배경으로 성립되었지만 구지 종교를 따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은구명씨는 이런 생활공동체를 "어떤 생각,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꿈꾸는 사회"라고 정의한다. "철학 공부는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큰 스승인 자연의 가르

침을 온 몸으로, 생각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과 아픔의 분까지도 활짝 열고 겸손하게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지혜가 인도하는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은구명씨의 이런 말은 귀농자의 마음 자리가 어떠한 활 자를 통과하고 있다.

형성한 공기와 물을 마시며 유기농 방법으로 자급자족에 만족하면서, 수행자적인 정신의 여유로움을 갖지 않은 조급한 귀농은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귀농은 직업을 바꾸는 삶의 전환이 아니라, 갖가지 병폐로 물든 현대문명에서 물러나 새로운 대안적 문명을 찾아 나서는 의식의 각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귀농의 성공비결은 '왜 귀농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라는 한 귀농자의 말처럼, 종교계가 귀농운동의 이념을 수립해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사찰과 교회 등이 귀농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아바타 코스

<뜻대로 사는 길>

苦人欲了知 三世觀一切 唯心造 - 화엄경 4구절 -

아바타는 자신의 마음(심)이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및 사건들을 창조하거나 끌어당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토대로 한 매우 강력하며 빠른 효과를 가져오는 코스(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세계 64개국에서 안내되고 있으며 현대 불교, 선(禪)의 공학, 새로운 인간 존재의 탐사기법 등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봉인사에서 아바타(菩薩) 코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바타 코스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게 되는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땅의 수행자들을 초대합니다.

아바타 즉 보디사트바 코스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 뜻대로 사는 길을 성취하는 강력한 의식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수행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벗이 될 것입니다.

- ▶ 기 간 : 2000년 10월 6일 오전10시부터 13일까지 (지방에 계신분은 하루전에 오십시오)
- ▶ 참가비 : 160만원 숙박비 20만원
- ▶ 마스 터 : 海山스님, 寂義스님
- ▶ 연락처 : e-mail) www. Haesan Avatar.com
www. bonginsa @shinbiro.com
전화) 062)653-9097/ 011-606-1976 해산 031)572-5585 봉인사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

법륜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불교기초교리강좌의 다수불교 철학의 정수인 다수기신론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기초교리

- 개 강 : 2000년 10월 6일 (금요일)
-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기 간 : 2000년 10월-12월 (3개월간)
- 법 사 : 오경스님 (법륜사 주지)
- 등록금 : 5만원 (3개월분)

대승기신론

- 개 강 : 2000년 10월 5일 (목요일)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 기 간 : 2000년 10월-2001년 3월 (6개월간)
- 법 사 : 오경스님 (법륜사 주지)
- 등록금 : 5만원 (3개월분)

불일시민선방

- 일 시 : 매주 금,토요일 오후 7:30-10:00
- 대 상 : 참선에 관심 있는 분(초심자 환영)
- 등록금 : 5만원 (3개월분)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참야정진

대한불교 조계종 법륜사
송광시 서울본원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21-1 T. 733-5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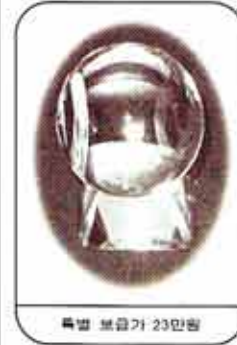
진귀한 보석 (크리스탈) 觀音球



옛부터 神通力을 가진 水晶球 觀音을 예언하였다



수행성공 목적수행구 (보급기 7만원)



특별 보급가 23만원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 헤아릴 수없는 기(氣)가 방출되어 뇌 활동을 활발하게 도움

소원성취 · 안전운행 사업번창 · 결혼영혼 가정화목 · 부부화합 삼세소멸 · 관재구실 운수대통, 각 간절 한 한가지 소원을 말하고 기도를 드리면 소원을 알려 줌

- 구입 하신 분에 한하여 법법을 알려드립니다
- 진귀한 물건이므로 단 10명에게만 보급합니다.

농협 150042-52-200478 이민택
▶ 입금 확인 후 우송해 드립니다.
(053)982-6778 011-813-3679

지 장 선 원



법륜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이민택 011-813-3679